

지역 영상산업 인력자원 분석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박병주* · 최영근* · 김재현* · 김치용*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 디지털방송영상학과

A Study on Human Resources of Local Visual Industry (Focus on Busan Metropolitan City)

Park Byeong-Ju* · Choi Yeong-Geun* · Kim JaeHeon* · Kim Cheeyong*

*Graduate School of New Media & Visual Technology, Dong-Eui University

e-mail : byongju918@hanmail.net, kimchee@deu.ac.kr

요 약

영상산업의 불모지와 같던 부산이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PIFF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상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도시(CinePort Busan)을 추진하면서 2004년까지 1단계 육성기로 '영화 촬영하기 좋은 도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단계 정착기로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왔고 지금은 3단계 발전기로 영상산업을 정착시키고 영상제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산시의 영상산업 지원 육성 정책에 맞추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 고용문제는 영상산업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영상산업과 인력자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계획에 따른 인력 공급이 지역 영상인력의 역내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ABSTRACT

Busan was wasteland of visual industry, But It has been undergo a complete change visual industry city since It was started 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PIFF) in 1996. It promoted Cineport Busan, 1st step. promotion age 'good city film' 2004, 2nd step. settlement age 'good city produce movie' from 2005 to 2007, now 3rd step. development age settle down visual industry and progressing project for make importance place produce movie. so, employment problem of region visual human resources. It is indispensable element for become real region industry in visual industry. So that, this study analyzes what is problem of visual industry and human resources in Busan city. Then inquired what will happen supply region visual human resources through visual importance city Busan development plan.

키워드

영상인력, 영상산업, 영상도시, 부산광역시

1. 서 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실패로 날로 심화되어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산의 산업 공동화(空洞化)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및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부산시는 4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 이중 영상산업은 각종 연계산업과의 Cluster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21세기형 신 성장 동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이다. 부산은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5개년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2차 5개년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개발에 의한 영상기업의 발전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상시 공급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영상콘텐츠 마케팅을 통한 원활한 콘텐츠의 유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영상 산업육성 의지와 영상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산지역 유치 및 신규 투자 의지 등 부산시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만이 부산의 영상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영상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감에 따른 역내 영상산업의 현황과 영상인력을 분석하고 지역영상인력의 역내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영상산업

부산에는 [표1]에 나타나 있듯이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게임, 음악 등 약266개 영상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국대비 점유율이 약 6%정도며 대부분 기업이나 관공서, 방송국 등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제작하는 형식의 규모나 집행되는 사업비가 적고 영세한 업체들로 이루어진 산업구조이다.

[표1] (단위: 개)

업종	총계	부산	비율(전국대비)
영화	660	27	4%
애니메이션	214	8	4%
광고	1,064	73	7%
방송	897	28	3%
게임	732	51	7%
음악	383	12	3%
기타	388	67	17%
계	4,338	266	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클러스터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방안, 2005년

지역의 영상인력이 지역에 흡수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은 이처럼 기업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열악하며 부산전체 고용시장의 규모가 작고 설령 취업이 된 다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 영상관련 업체에 취업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적인 곳도 있다. 지역영상인력을 많이 채용하여 좋은 예가 되고 있는 2008년 완공한 영상후반작업시설은 처음시작하면서 채용한 인력 75명 중 지역영상인력을 27명 채용하였으며 2009년 채용계획을 보면 48명인데 28명을 지역영상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 초기라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상후반작업이라는 작업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 정년을 보장받기 어려워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영상인력의 역내 수급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상관련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영상기업의 역할이다. 하지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의 영상관련 업체 중 영화와 비디오 업종에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였을 뿐 방송이나 게임, 음악 등의 업종에서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

업종	2005년	2006년	증 감
영화	25	27	증2
애니메이션	8	8	0
비디오	70	73	증3
방송	72	28	감44
게임	139	51	감88
음악	20	12	감8
기타	7	67	증60
계	341	266	감75

※부산 CT산업 현황보고서, 2007년

부산의 영상관련 업체의 감소추세는 지역불균형에 의해 감소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기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 집중보다 더 심각하게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극심하며 영화영상관련 정책이 대부분 관을 통해 집행되는 특징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도 중앙행정부가 위치한 서울 집중은 더욱 심하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영상산업의 문제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국내 영상산업규모자체가 영상산업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회전하기에는 작은 산업규모라는 것도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 중에도 대표적인 경우가 영화사업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 투자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어 자본과 인프라가 지방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서울 편중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자원을 이용한 적극적인 투자자본의 유치와 투자조합 결성 및 민간시장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 할 것이고, 영상기업은 투자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 영상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상 관련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 맞는 콘텐츠 기획과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적 강점을 살린 특성화 된 콘텐츠와 새로운 문화에 맞는 인터넷과 모바일 형식의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며, 콘텐츠 기획의 단계부터 One source multi use 형식의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장난감, 출판 등의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여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영상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부산의 영상 관련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서 BCM(Busan Contents Market)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산콘텐츠마켓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국의 방송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사고파는 시장이다.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을 보면 미디어 기업들이 유통 시장을 장악하여 원활한 유통시장의 흐름을 막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산 콘텐츠마켓은 시장 중심적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상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영상콘텐츠시장에 변화를 가져 온 부산 콘텐츠 마켓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방송, 영상콘텐츠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부산을 아시아 영상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본다.

2. 영상인력

1) 영상인력 현황과 문제점

부산의 영상인력은 [표3]에 나타나듯이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방송, 게임, 음악, 문화콘텐츠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정규직 935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405명으로 총1340명 정도이다. 이는 역내 18개 대학 49개 전공학과 2,624명과 부산영상고, 부산국제영화고 6개 학과에서 180명이 매년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인력이 역내 영상산업으로 흡수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영상산업에서 인력과 자본등 거의 모든 인프라들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인 만큼 지역의 영상인력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상인력의 역외 유출은 지역 영상인력 인프라 구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3] (단위: 명)

구 분	정규직	프리랜서
영 화	42	35
애니메이션	13	12
비디오	277	104
방 송	140	51
게 임	183	77
음 악	26	11
문화콘텐츠	254	115
계	935	405

※부산 CT산업 현황보고서, 2007년

지역영상인력이 양성되고 있는 곳은 정규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도 시네마테크,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영상교육을 통한 영상인력 배출 자를 합하면 앞서 말한 수치보다 높다. 영상인력에 있어 정규 교육기관과 그 외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 중급교육 수준의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인력이 되기 위한 고급과정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 영상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상기업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역 영상인력이 타 지역의 영상인력보다 우수인력이 되어 지역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2)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영상인력의 역내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과 영상 관련시설의 건립을 통한 고용창출일 것이다. 지역 영상기업의 경쟁력은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년 배출되고 있는 영상인력을 영상산업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일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까지도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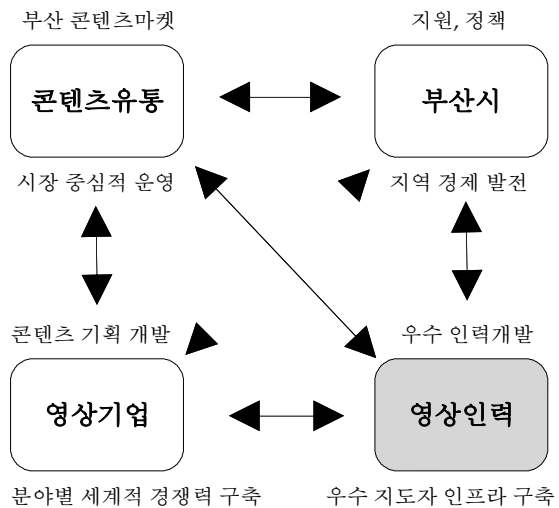
무한교류시대로 나아갈 것이므로 한 나라에서 영화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자국의 강점분야를 내세워 공동 제작하는 국가대 국가 형식의 컨소시엄 제작이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영상기업들의 각 분야별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 영상인력이 역내수급을 통해 영상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인력의 해외활동을 통한 국제 인프라 구축이 영상인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영상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인력을 역내영입으로 지역의 영상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영상기업의 발전으로 인한 영상인력의 일자리 창출, 학교와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지금 부산의 영상도시 상징물로 건립되고 있는 부산 영상센터 두레타운 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역내 영입을 통한 우수 지도자 인프라구축이라 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볼 때 국내, 외 활동하는 지도자 중 우수 지도자를 역내에 영입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역내 각 대학의 고민과 부산시의 정책적지원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3) 순환구조의 인력 수급

[그림1]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의 영상중심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영상

산업의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데 이때 영상인력의 역내수급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그림1]에서 보듯이 시장 중심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영상콘텐츠 유통 시장의 형성은 영상기업들로 하여금 양질의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유도해 낼 것이며 분야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기업은 우수인력을 필요로 할 것인데 우수인력의 역내수급은 부산시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다시 부산시의 지원과 정책을 통해 지역 영상산업이 발전되는 순환구조의 인력수급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영상 콘텐츠유통, 영상기업, 영상인력, 부산시의 각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력부분에서의 우수 인력개발과 우수 지도자 인프라 구축은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는 핵심이라 할 것이다.

3.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 계획에 따른 인력 수급

부산은 [표4]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영상문화, 영상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영상관광, 영상복지 분야에 총 9,614.95억 원의 재원을 모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영상 인력 수급에 있어 많은 영상관련 사업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 계획은 앞으로의 영상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 본다.

[표4] 재원조달 (국비, 시비, 민자) 계획 (단위: 억)

년도	총액	국비	시비	민자
소계	9,614.95 (100%)	4,321.6 (45%)	2,549.35 (26.5%)	2,744 (28.5%)
영상문화	2,628.3	1,402.4	1,106.2	119.7
영화산업	5,398.8	2,439.7	644	2,315.1
문화콘텐츠 산업	648.1	266.5	294.8	86.8
영상관광	916.65	212	487.75	216.9
영상복지	23.1	1	16.6	5.5

※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 계획, 2009년

아시아 영상중심도시 조성 로드맵을 보면 영상문화 12, 영화산업27, 문화콘텐츠10, 영상관광18, 영상복지6 총 73개 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하겠다는 일정이다. 분야별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영상 문화 분야에 PIFF 재단법인화와 부산영상센터 두레타운 건립이 있고 영화산업분야에 제2스튜디오, 부산종합촬영소,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 부산유치가 있으며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립이 있다. 또한 영상관광분야에는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동부산 테마파크 조성이 있으며 영상복지 분야에는 시민대상의 영화제작 체험교육 확대와 UCC 공모전 지원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역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

겠지만 세부 인력구조가 발표되지 않아 얼마나 고용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부산시가 아시아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에서 각종 시설건립과 사업 지원운영 및 행사추진은 역내 영상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어 지역 경제발전을 통한 영상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영상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감에 따른 역내 영상산업의 현황과 영상인력을 분석하고 지역영상인력의 역내수급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을 하였다. 고찰을 통해 지역 영상기업이 역내 영상인력을 흡수하기에는 영상산업의 규모가 작아 매년 배출되는 지역영상인력을 수용하지 못하여 역외유출로 역내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상산업발전을 통한 우수인력의 역내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영상콘텐츠 유통의 중요성과 우수지도자 영입을 통한 인프라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자금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영상중심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은 시민들의 세금과 국가차원의 지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상산업의 외형성장 못지않게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여 영상인력이 역내 영상업체에 취업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영상도시 부산이 문화의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정책과 지원은 영상콘텐츠 유통, 영상기업, 영상인력의 각 주체들이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원활한 순환구조가 이루어짐으로서 빛을 발할 것이며 지역경제발전으로부터 지역영상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부산광역시, “시정백서” 영화영상진흥, 2008
- [2]아시아 영상중심도시 부산 조성 계획, 2009
- [3]방송영상산업 미래비전 2012, 2008
- [4]박미정, “부산영화산업정책의 발전방안연구”, 2005
- [5]김현숙, “영상산업의 세계체제”, 2004
- [6]박중호, “지역 영상산업 연구” 부산의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2002
- [7]구종상, “부산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특성화 방안 연구, 2006
- [8]김진해, “한국의 영상산업 클러스터 정책”, 2009
- [9]www.busan.go.kr 부산광역시청
- [10]www.piff.org 부산국제영화제
- [11]www.bfc.or.kr 부산영상위원회
- [12]www.ibcm.tv 부산콘텐츠마켓